

# 제4회 한일국민상호인식조사 한일비교분석 결과 보고서

[Embargo] 본 내용에 대해서, 라디오, 텔레비전, 통신사, 온라인 등에서는 2016년 7월 20일(수) 16:00 이후에, 신문지상에서는 7월 21일(목) 조간부터 보도해 주십시오.

※ 본 여론 조사 결과의 저작권은 동아시아연구원과 겐론 NPO에 있습니다. 인용할 경우 반드시 출처를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특정비영리활동법인 言論NPO



동아시아연구원

< 조사협력 >

日本 : 輿論科学協会 한국: 한국리서치

2016年 7月

## 조사 개요

한국의 민간싱크탱크인 동아시아연구원(EAI)과 일본의 공인NPO인 言論 NPO는 한일 양국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상호인식조사를 2016년 6월부터 7월까지 실시했다. 본 조사의 목적은 한일 양국 국민의 상대국에 대한 이해와 인식의 현황 및 그 변화를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양국 국민 간에 존재하는 다양한 인식의 차이를 해소하고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 있다.

본 조사 결과는 9월2일에 개최되는 한일 민간대화인 ‘한일미래대화’ 에서 발표하고 논의하는 방식으로 활용된다.

한국 측의 여론 조사는, 전국의 19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6월 16일부터 7월 5일까지 조사원에 의해 면대면 면접 방식에 의해 실시되었다. 유효 회수 표본수는 1,010명으로, 응답자의 성별은 남성이 49.5%, 여성이 50.5%이다. 응답자의 최종 학력은 초졸 이하가 7.5%, 중졸 10.2%, 고졸 37.5%, 대학 재학□중퇴(전문대 포함)가 12.1%, 대졸 31.8%, 대학원 졸업이 0.8%이다. 나이는 20세 미만이 1.8%, 20세부터 29세까지 16.1%, 30세부터 39세까지 17.8%, 40세부터 49세까지 20.9%, 50세부터 59세까지 20.0%, 60세 이상이 23.4%이다.

일본 측의 여론 조사는 일본의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6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방문 유치회수법에 의해 실시되었다. 유효 회수 표본수는 1,000명이다. 응답자의 성별은 남성이 48.8%, 여성이 51.2%이고 최종 학력은 중졸이 8.0%, 고졸 47.0%, 단기/전문고졸 19.9%, 대졸 22.3%, 대학원 졸업이 1.5%이다. 응답자의 나이는 20세 미만이 3.0%, 20세부터 29세까지 11.7%, 30세부터 39세까지 15.1%, 40세부터 49세까지 16.9%, 50세부터 59세까지 14.4%, 60세 이상이 38.9%이다.

# 1. 상대국에 대한 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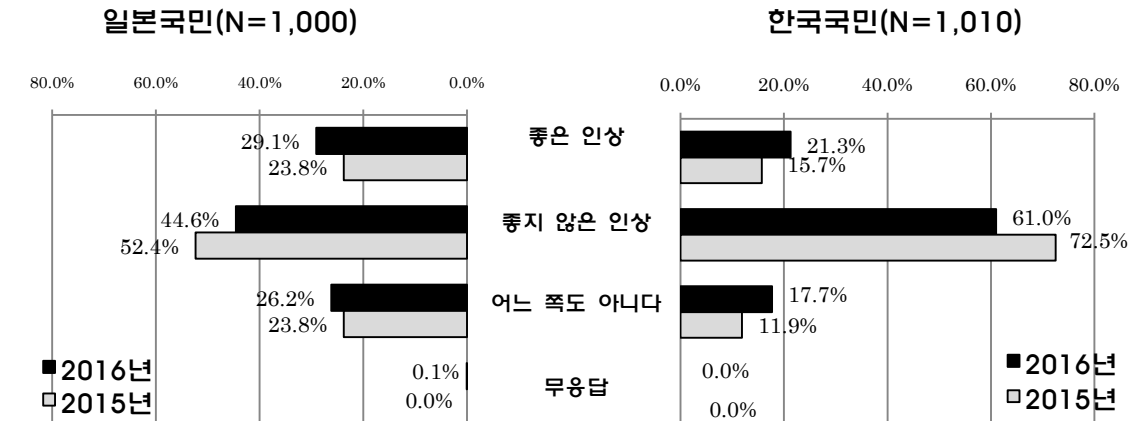
## 1 - 1. 한일 양국 국민의 상대국에 대한 인상

한일 양국 국민의 상대국에 대한 인상은 여전히 나쁜 편이지만 개선되는 추세이다.

일본에 대한 인상을 '좋지 않다'고 응답한 한국인은 61.0%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지난해 72.5%에 비하면 11%p 이상 대폭 개선됐다. '좋다'고 응답한 사람도 지난해 15.7%에서 21.3%로 증가하고 있어 감정 악화에는 제동이 걸렸다.

반면, 한국에 대한 인상을 '좋지 않다'('대체로 좋지 않다' 포함, 이하동일)고 응답한 일본인은 44.6%로 나타났다. 본 조사에 의하면 2013년 37.3%, 2014년 54.4%, 2015년 52.4%로 악화되고 있었지만, 올해는 50% 이하로 떨어지면서 개선되었다. '좋다'('대체로 좋다' 포함, 이하 동일)고 응답한 사람도 29.1%로 2014년(20.5%), 2015년(23.8%)보다 개선되었다.

【그림 1 상대국에 대한 인상】



※좋은 인상은 '좋은 인상'과 '대체로 좋은 인상'을, 좋지 않은 인상은 '좋지 않은 인상'과 '대체로 좋지 않은 인상'을 합친 수치

## 1 - 2. 긍정적·부정적 인식을 갖게 된 이유

양 국민 모두에게 '역사'와 '영토'문제가 상대국 인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정치 지도자의 언행에 대한 부정적 인상이 미친 영향은 양국 모두 감소하고 있다.

한국인이 일본에 부정적인 인상을 갖는 이유는 '한국을 침략한 역사에 대해 제대로 반성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76.3%로 지난해(74.0%)와 마찬가지로 가장 많았다. '영토 문제'도 70.1%(지난해 69.3%)로 높은 응답을 보여, 이 두 가지 이유가 예년처럼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 1년간 큰 변화를 보인 것은 부정적인 인상을 갖는 이유로서 '일본 정치 지도자의 언행때문'이라는 응답이 지난해 24.7%에서 올해는 14.6%로 10%p 감소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정치 지도자의 언행에 대한 평가가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단, '일본인은 명분과 본심이 다르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지난해 16.7%에서 올해 24.2%로 증가했다.

일본인이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인상을 갖는 이유는 '역사 문제 등으로 일본을 계속 비판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75.3%로 지난해(74.6%)에 이어 70%를 넘어 가장 많았다. '영토 문제'(39.9%)가 다음으로 이어지는 구도는 지난해와 동일하다. 1년간 큰 변화를 보인 것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한국 정치 지도자의 언행에 호감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지난해 28.1%에서 올해 17.9%로 약 10%p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상대국에 대해 긍정적인 인상을 갖는 이유로 일본인은 '한국의 드라마나 음악 등에 관심'을 끄는 사람이 51.2%(지난해 51.7%)로 가장 많아, 지금까지의 조사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국인은 '일본인은 친절하고 성실하다'는 응답이 지난해 63.9%에서 6%p 증가한 69.8%로 가장 많았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생활 수준이 높은 선진국'(48.8%, 지난해 49.4%)이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큰 변화를 보인 것은 '같은 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응답율이 지난해 8.9%에서 두 배 증가하여 17.7%가 되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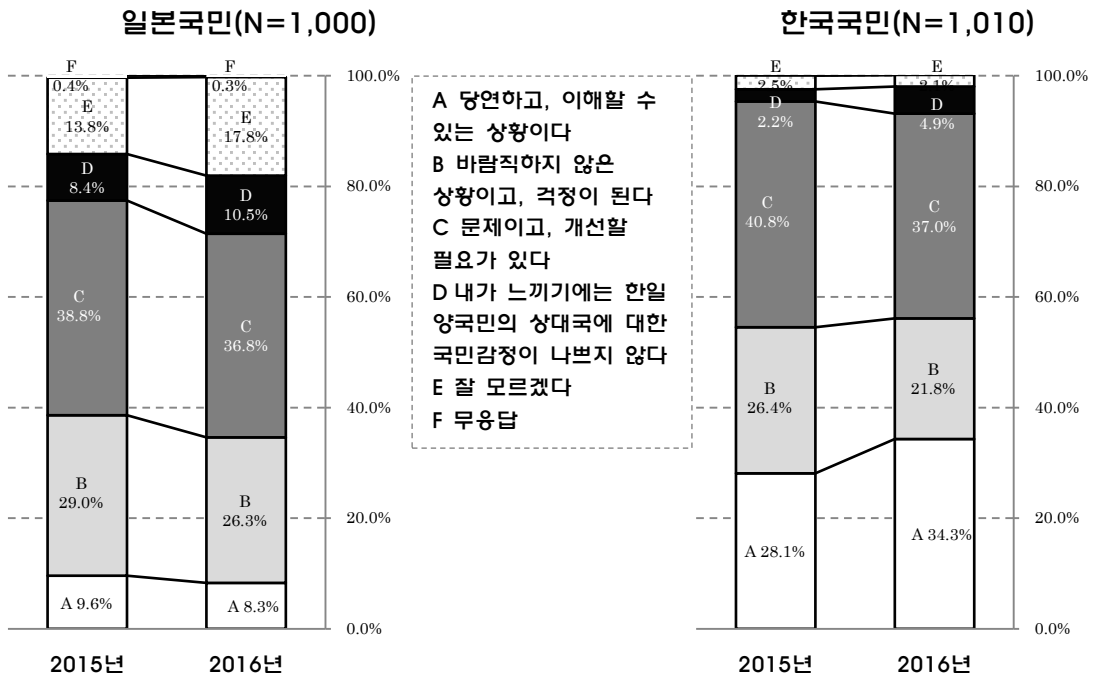
### 1 - 3. 양국 국민감정의 악화 현상에 대한 인식

한일 양국 국민의 약 60%가 국민감정의 악화 현상을 바람직하지 않고, 개선할 문제로 인식하고 있지만, 그 수치는 지난해보다 감소했다.

한국인의 경우, 양국 국민의 감정 악화 현상을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며, 걱정하고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21.8%(지난해 26.4%), '개선할 필요가 있는 문제'라고 응답한 사람은 37.0%(지난해 40.8%)로, 60% 가까운 사람들이 문제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지난해 67.2%에 비해서는 감소했다.

양국 국민 감정이 여전히 나쁜 상황을 일본인의 26.3%(지난해 29.0%)가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며, 걱정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문제이며,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은 36.8%(지난해 38.8%)로, 이 두 대담을 합치면 63.1%의 일본인이 국민감정 악화현상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과 마찬가지로 지난해 67.8%보다는 다소 감소했다. 한편, 감정악화 현상을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일본의 경우 10%에도 못 미쳤지만, 한국에서는 34.3%로 지난해(28.1%)를 상회하여 30%를 넘어섰다.

[그림 4 상대국에 대한 국민 감정 평가]



## 2. 상대국에 대한 기초적 이해

### 2 - 1. 상대국의 사회·정치 체제에 대한 인식

한국인의 약 절반은 일본을 '군국주의'로, 일본인의 약 절반은 한국을 '민족주의'에 기반한 국가로 인식하고 있지만, 이러한 인식은 지난해보다 각각 감소하였다.

현재 일본 사회/정치체제의 성격을 '군국주의'로 생각하는 한국인은 49.6%로, 지난 4년 간의 조사와 마찬가지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지난해 56.9%보다는 감소했다. '국가주의'라고 답한 응답이 36.5%(지난해 34.3%)로 그 뒤를 이었고, 지난해 두 번째로 많았던 '자본주의'라는 응답은 32.1% (지난해 38.9%)로 올해는 4 번째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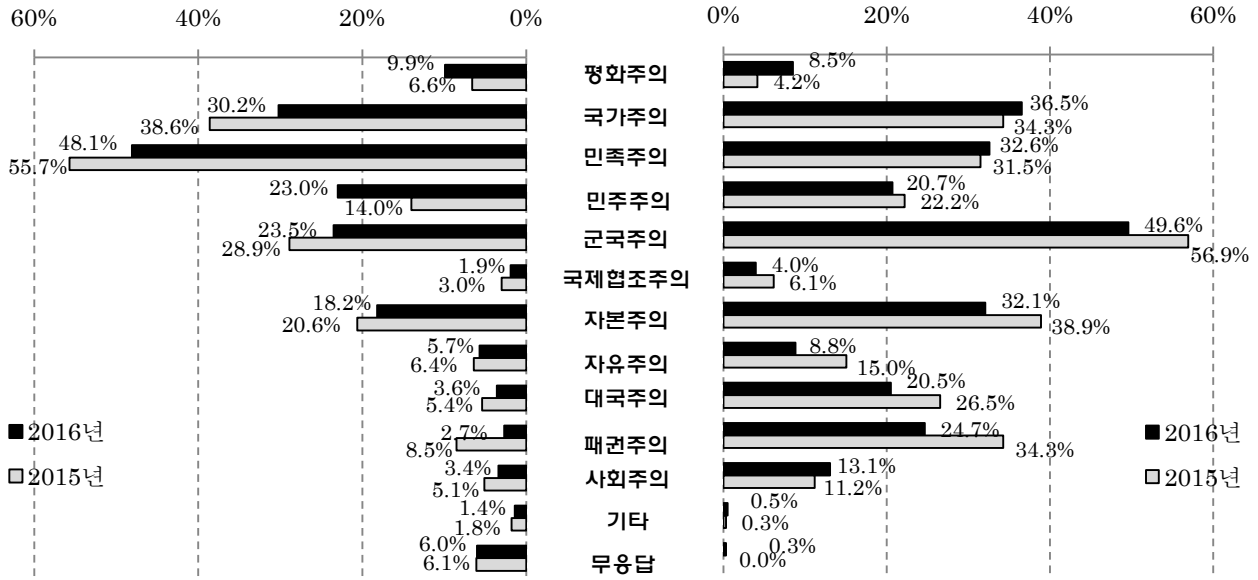
또한 일본을 '패권주의'로 보는 한국인은 24.7%로 지난해의 34.3%에서 크게 감소했고, '대국주의'라는 견해도 지난해 26.5%에서 올해 20.5%로 감소했다. 또한 '평화주의'라는 견해가 지난해 4.2%에서 올해 8.5%로 두 배 증가했다. 일본을 '민주주의'국가로 보는 사람은 20.7%로 지난해 22.2%와 마찬가지로 20% 정도이다.

한편, 한국의 사회/정치 체제에 대해 '민족주의'라고 생각하는 일본인이 48.1%로 가장 많았지만, 지난해 55.7%보다는 다소 감소했다. '국가주의'라고 보는 사람이 30.2%로 그 뒤를 이었지만 지난해 38.6%보다는 감소했고, 세 번째로 많았던 '군국주의'라는 견해도 지난해 28.9%에서 올해는 23.5%로 감소했다. 한편, 한국을 '민주주의'라고 생각하는 일본인은 23.0 %로 지난해 14.0 %보다 9%p 증가했다.

【그림 5 상대국의 사회 및 정치체제에 대한 인식】

일본국민(N=1,000)

한국국민(N=1,010)





### 3. 한일 관계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인식

#### 3-1. 현재와 미래의 한일 관계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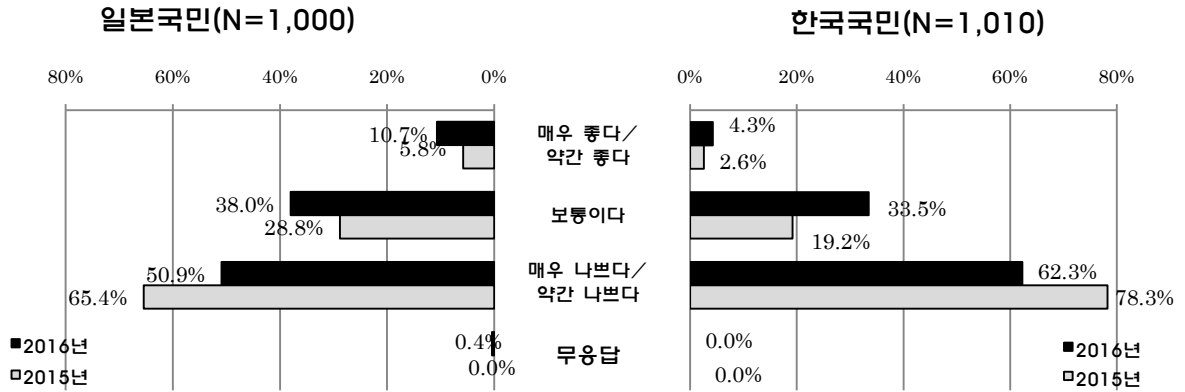
한국인의 60%, 일본인의 50% 이상이 현재 한일 관계를 '나쁘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지난 2년과 비교하면 양국 모두 크게 개선되었다. 향후 한일 관계에 관해서 양 국민 모두 '변함없을 것'이라는 견해가 가장 많았고 그 수치는 작년보다 증가했다.

현재의 한일 관계에 대해 '나쁘다'('매우 나쁘다'와 '대체로 나쁘다'의 합계, 이하 동일)로 보는 일본인은 50.9%였다. 여전히 50%를 초과하고 있지만, 2014년 73.8%, 2015년 65.4%와 비교하면 크게 줄어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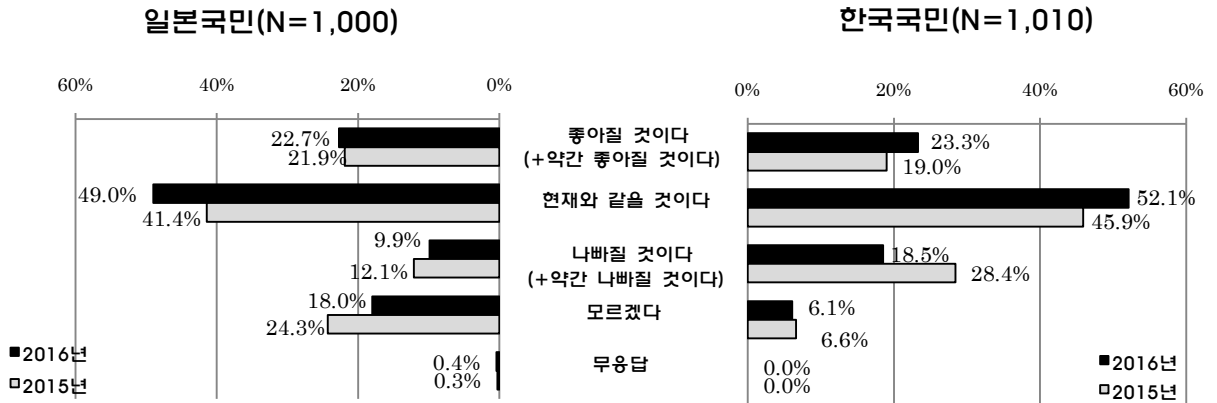
한국인 경우에도 '나쁘다'는 응답은 62.3%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2014년 77.8%, 2015년 78.3%와 비교할 때 15%p 이상 크게 개선되었다..

향후 한일 관계의 전망에 대해서는 현재의 한일 관계와 '변함 없을 것'이라고 보는 한국인은 52.1%(지난해 45.9%), 일본인은 49.0%(지난해 41.4%)로 가장 많으며 양국 모두 작년보다 증가했다. 단, '좋아질 것'('대체로 좋아질 것' 포함)이라는 응답을 보면 한국인은 23.3%(지난해 19.0%), 일본인은 22.7%(지난해 21.9%)로 각각 지난해보다 다소 증가했다. '나빠질 것'('대체로 나빠질 것' 포함)이라고 보는 사람도, 일본인은 9.9%(지난해 12.1%), 한국인은 18.5%(지난해 28.4%)로 작년에 비해 감소하는 등 관계 개선을 기대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그림 6 현재의 한일관계】



【그림 7 미래의 한일관계】



### 3 - 2.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 해야 할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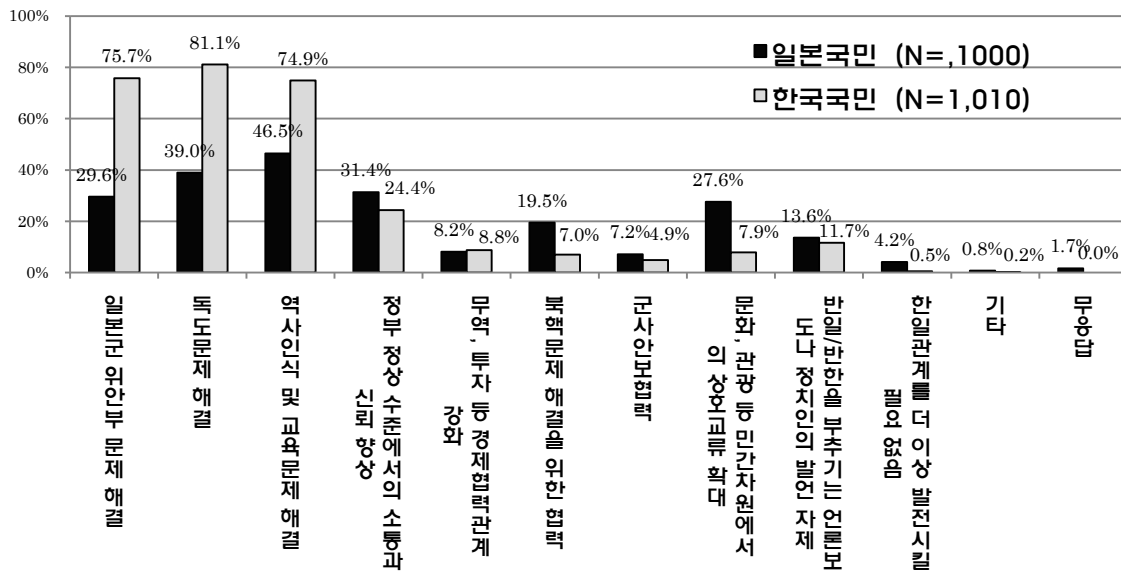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 한국인은 '영토' '위안부' '역사'문제에 대한 노력을 특히 중시하고 있지만, 일본인은 그 외에도 '정부 차원의 대화, 신뢰관계' '상호 교류 확대'도 중시하고 있다. '북핵 문제'의 한일 협력이 한일 관계의 발전에 기여한다고 느끼는 한국인은 일본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

일본인이 한일 관계의 발전을 위해 양국이 해야 할 과제로 생각하는 것은 '역사 인식 문제 해결'이 가장 응답률이 높지만, 46.5%로 절반에는 미치지 못 한다. 다음으로 '독도 문제의 해결'이 39.0%, '정부 정상 수준에서 의사 소통과 신뢰관계 향상'(31.4%),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29.6%), '국민 간의 문화, 관광 등 상호 교류 확대'(27.6%) 등이 30% 전후로 조사됐다.

이에 비해, 한국인은 '독도 문제 해결'이 81.1%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이 '75.7%, '역사 인식 문제 해결'이 74.9%로 나타났다. 한국인의 경우, 이 3개에 대한 응답율이 월등히 높았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에 대해서 일본인은 19.5%가 선택한 반면, 한국인은 7.0%만 선택하여 이 문제를 한일관계 발전을 위한 과제로 기대하는 한국 사람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8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서 해야 할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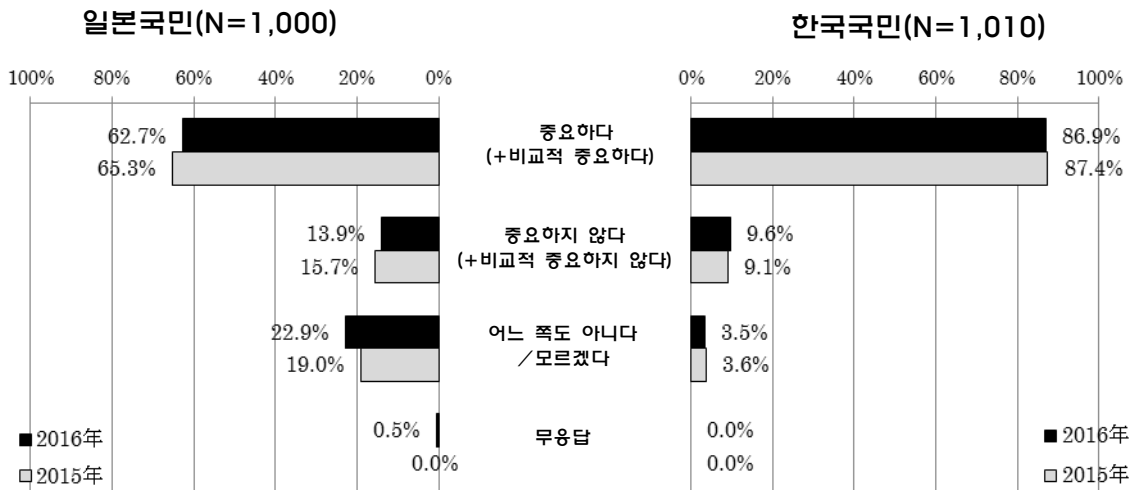


### 3 - 3. 한일관계의 중요성

한일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한국에서는 80%, 일본에서는 60%를 넘어섰다.

한일 관계를 '중요하다'('대체로 중요하다' 포함)고 생각하는 한국인은 86.9%(지난해 87.4%)로 80%를 훨씬 초과했고 일본인은 62.7%(지난해 65.3%)로 60%를 웃돌았다. 한일 관계가 '중요하지 않다'('대체로 중요하지 않다' 포함)고 생각하는 한국인은 9.6%(지난해 9.1%), 일본인은 13.9%(지난해 15.7%)에 불과해 양국 국민 모두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9 한일관계의 중요성】



### 3 - 4. 중국 대비 한일 관계의 중요성과 친근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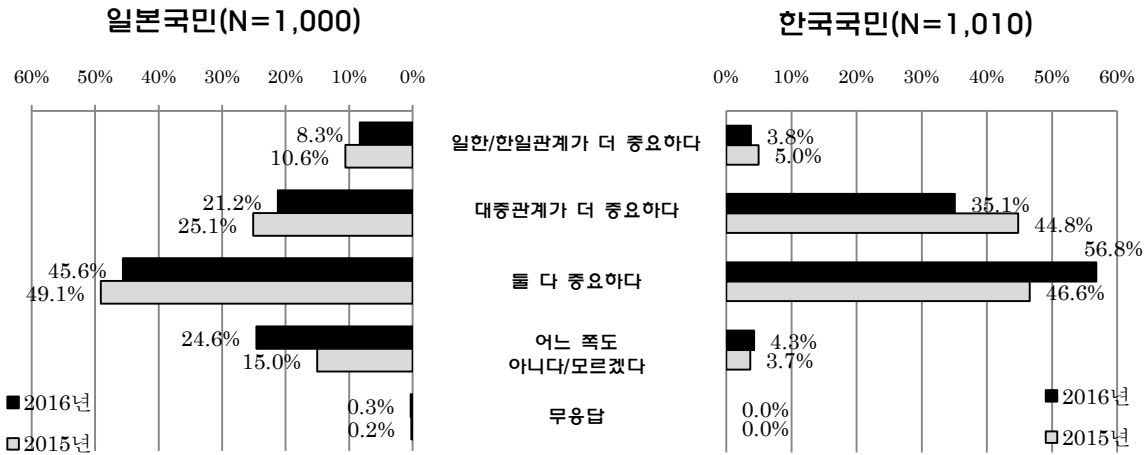
한일 관계와 대중국 관계에 대해 '둘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한국인은 50%를 넘었고 일본인은 40%를 넘었다. '한중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한국인은 35.1%로 지난해 (44.8%)보다 감소했다.

친근감 비교에서는 '한국에 친근감을 느낀다'는 일본인은 40% 가까운 반면, 한국인 중 '일본에 친근감을 느낀다'는 사람은 10%에 지나지 않고, '중국에 친근감을 느낀다'고 응답한 사람이 30%를 넘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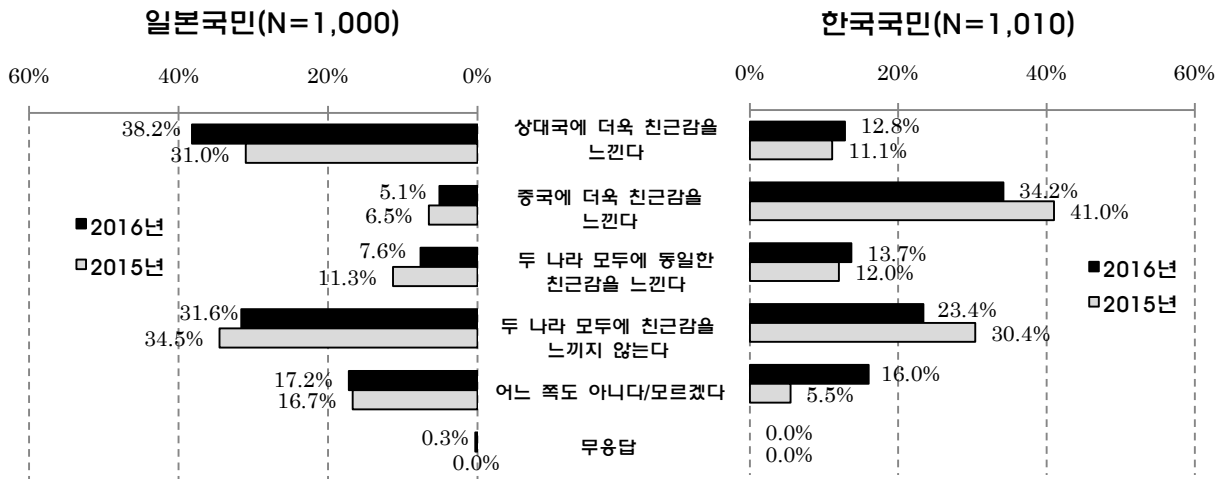
한일관계와 한중관계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지 묻는 질문에 한국인은 절반 이상인 56.8%가 '한중관계와 한일관계 둘 다 중요하다'라고 응답해 지난해 46.6%에서 10%p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작년 조사에서는 '한중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응답이 44.8%로 '둘 다 중요하다'는 응답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올해는 35.1%로 감소했다. 일본인의 경우도 '둘 다 중요하다'가 45.6% (지난해 49.1%)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상대국과 중국 중 어느 쪽에 친근감을 느끼는지 물어본 결과, 한국인의 경우 '중국에 더 친근감을 느낀다'는 응답은 지난해 41.0%에서 감소했지만, 34.2%로 가장 많았고 '일본에 친근감을 느낀다'는 응답은 12.8%(지난해 11.1%)에 그쳤다. 반면 일본인의 경우 '한국에 친근감을 느낀다'는 응답이 작년 31.0%에서 38.2%로 증가해 가장 많았고 작년 34.5%로 가장 많았던 '양국 어느 쪽도 친근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응답은 31.6%로 올해는 두 번째였다.

【그림10 한일·한중관계의 중요성】



【그림11 상대국과 중국에 대한 친근감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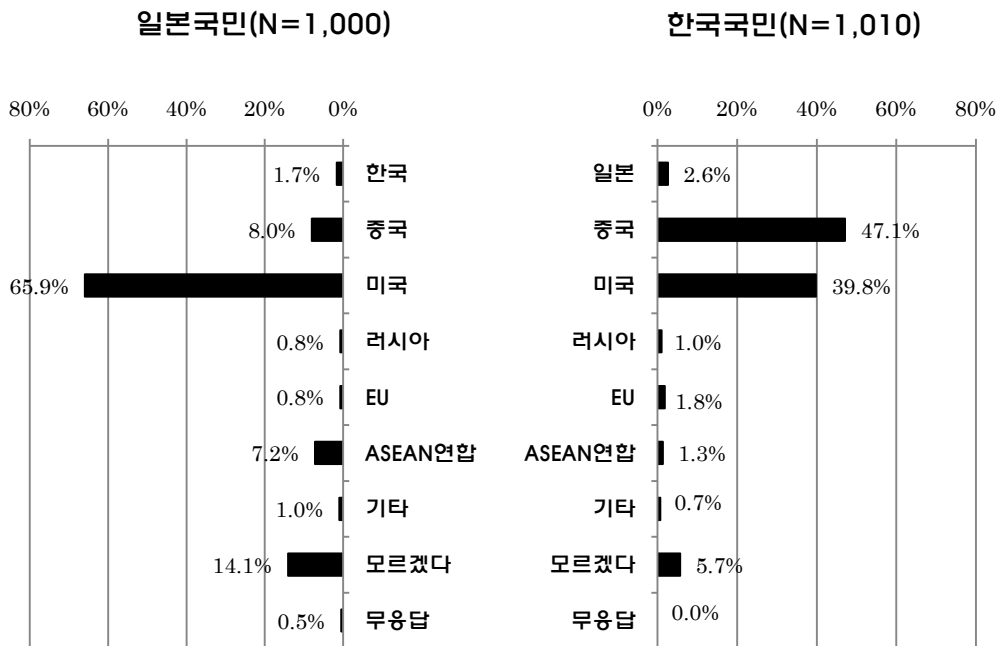


### 3 - 5. 자국의 미래에 중요한 국가

자국의 미래를 생각해볼 때 일본인은 세계에서 '미국'을 가장 중시하고 있는 반면 한국인은 동맹국인 '미국'보다 '중국'을 중시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국의 미래를 생각할 때, 세계에서 자국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국가 또는 지역을 물어본 결과, 한국인은 동맹 관계에 있는 '미국'(39.8%)보다 '중국'을 선택한 사람이 47.1%로 가장 많았다. 한편, 일본인은 동맹국인 '미국'을 선택한 사람이 65.9%로 가장 많았고, 두 번째로 응답율이 높은 '중국'(8.0%)과 큰 차이를 보였다. '한국'이라고 응답한 일본인은 1.7%, '일본'이라고 응답한 한국인은 2.6%에 불과했다.

【그림12 자국과 가장 중요한 관계의 국가】



## 4. 민간 교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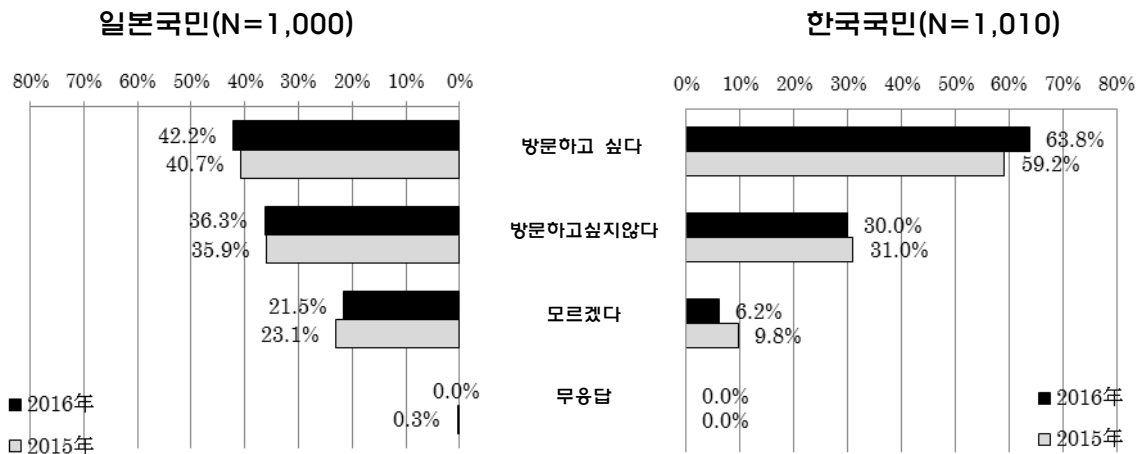
### 4-1. 상대국 방문에 대한 인식

한국 방문을 희망하는 일본인은 40%, 일본 방문을 희망하는 한국인은 60%를 넘으며, 모두 지난해보다 증가했다.

한국에 '가고 싶다'는 일본인은 42.2%로 지난해 응답률(40.7%)을 넘어섰다. 이에 대해 일본에 '가고 싶다'고 답한 한국인은 63.8%(지난해 59.2%)로 나타났다. 한편 '가고 싶지 않다'는 응답도 한국인 30.0%(지난해 31.0%), 일본인 36.3%(지난해 35.9%)로 각각 30% 정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국에 가고 싶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일본인은 '자연과 관광지 방문'(59.5%), '쇼핑'(55.5%), '역사/문화 유산 방문'(40.3%)의 순서였고, 한국인은 '자연과 관광지 방문'이 79.2%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역사문화유산 방문'(38.0%), '쇼핑'(27.8%)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13 상대국 방문의사】





## 5. 한일 양국의 역사문제에 대한 인식

### 5 - 1. 역사 문제에 관한 한일 양 국민의 인식

**한일 양국 모두 '양국 관계가 발전함에 따라 역사 인식 문제는 점차 해결된다'는 낙관적인 견해가 증가하고 있다**

한일관계와 역사문제의 관계에 대해 한국인의 경우, '역사 인식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양국 관계는 발전하지 않는다', 즉 역사문제의 해결을 한일관계 개선의 전제로 보는 견해가 42.8%로 가장 많았지만, 지난해 52.5%에서 10%p 감소했다. 그리고 '양국 관계가 발전함에 따라 역사 인식 문제는 점차 해결된다'는 낙관적인 답변이 지난해 20.9%에서 10%p 이상 증가한 32.9%로, 2013년 조사한 이래 처음으로 30%를 넘어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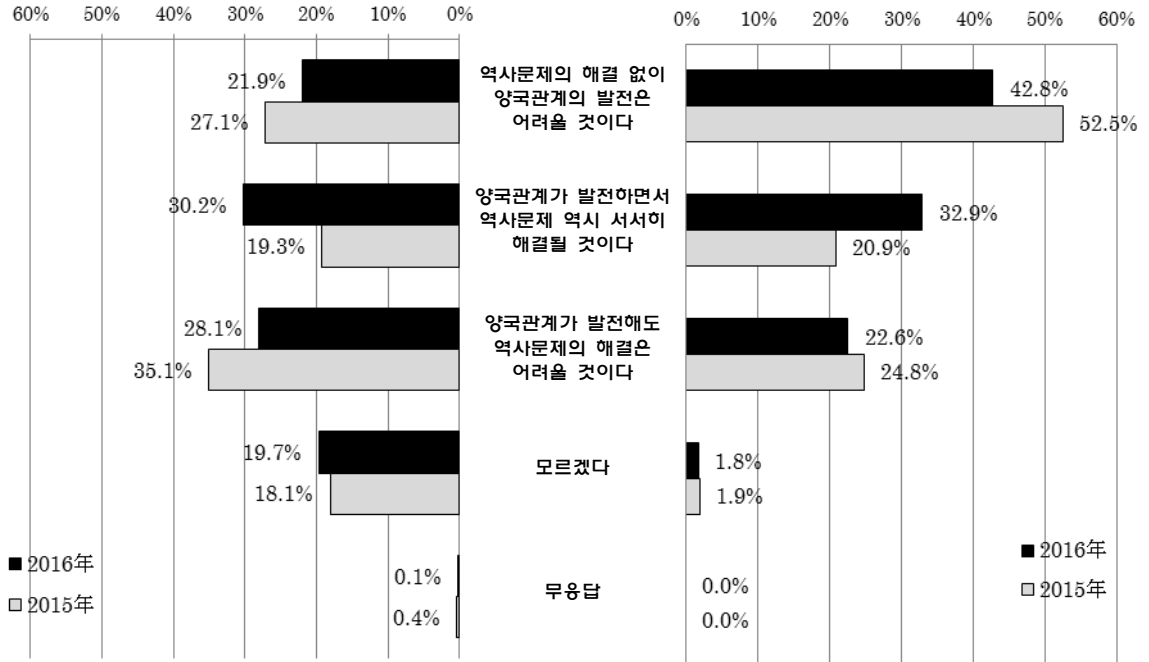
일본인은 '양국 관계가 발전함에 따라 역사 인식 문제는 점차 해결된다'는 견해가 지난해 19.3%에서 10%p 이상 증가한 30.2%가 되어, '양국 관계가 발전하고도 역사 인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렵다'는 응답률 28.1%(지난해 35.1%)를 넘어섰다. 본 조사를 시작한 2013년 이후 '역사 인식 문제는 점차 해결된다'는 낙관적인 전망이 '역사 인식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라는 비관적인 견해를 상회하여 역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역사문제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한국인은 '일본의 역사교과서 문제'를 71.9% (지난해 76.0%)로 가장 많이 꼽았고, 그 다음으로 '일본인의 위안부에 대한 인식'이 59.7%이지만 지난해 69.8%에서 크게 감소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일본인의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사죄의 부족'이 지난해 59.6%에서 올해 42.4%로 감소한 것도 눈에 띈다. 일본의 경우 '한국의 반일교육과 교과서 내용'이 59.9%(지난해 52.5%)로 가장 많았고 '일본과의 역사문제에 대한 한국인의 과도한 반일 행동'이 53.6%(지난해 52.1%)로 그 뒤를 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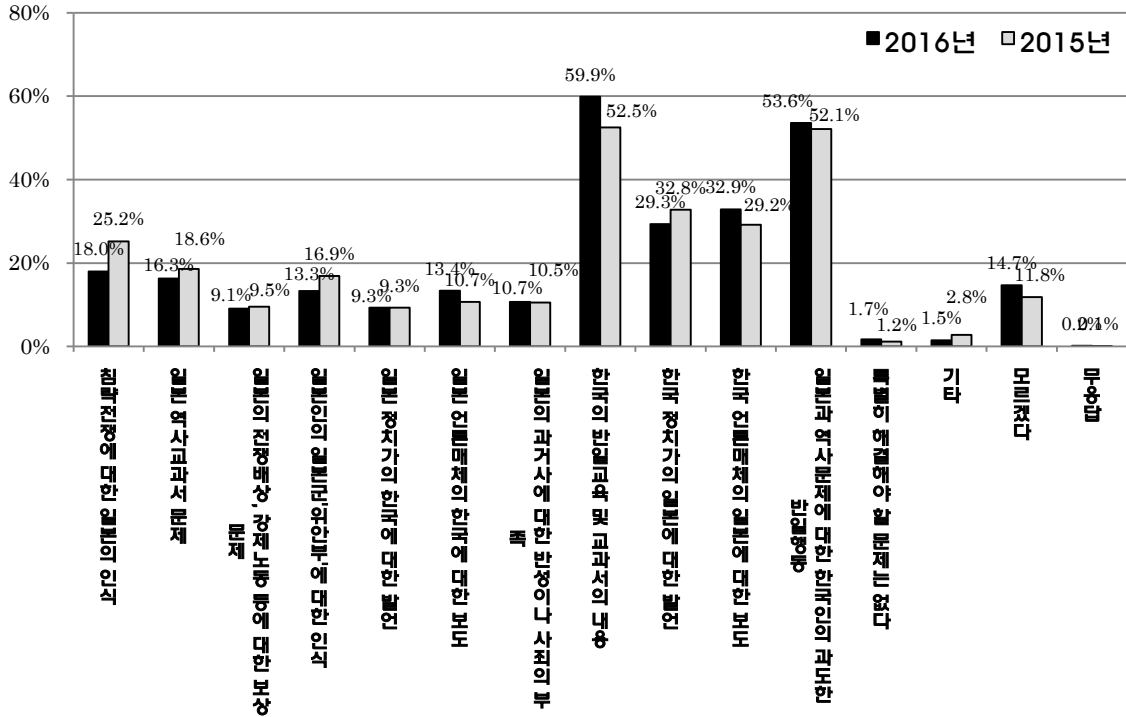
【그림14 한일관계와 역사 문제】

일본국민(N=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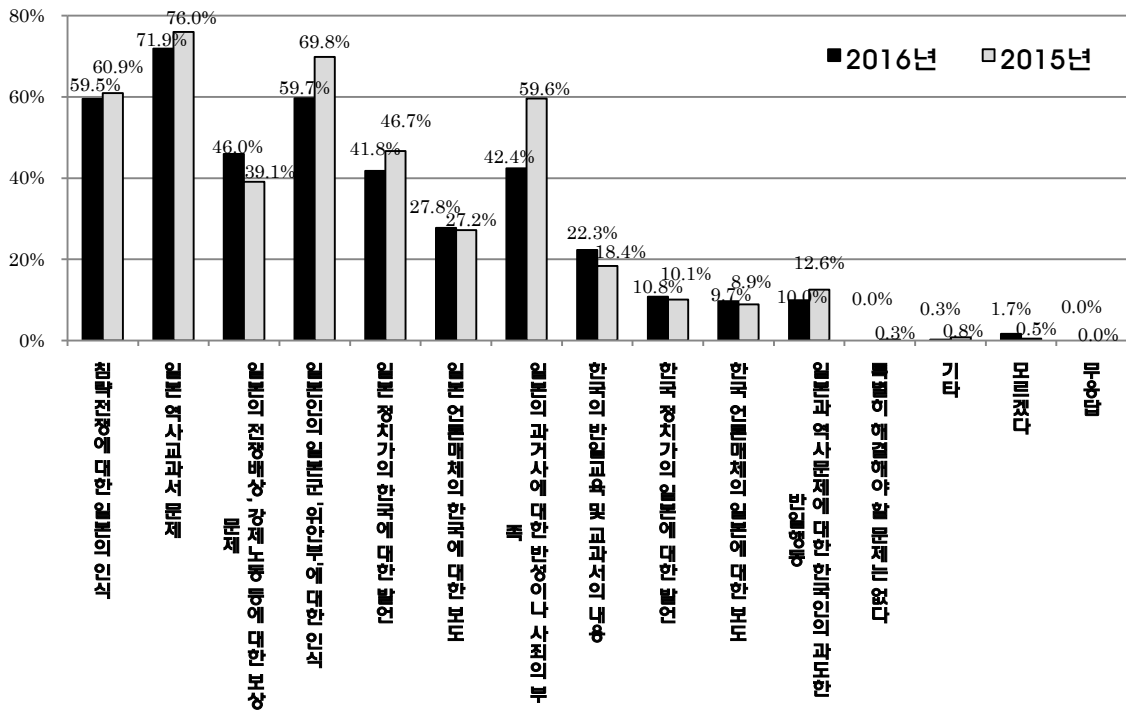
한국국민(N=1,010)



【그림15 한일 역사문제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  
일본국민(N=1,000)



한국국민(N=1,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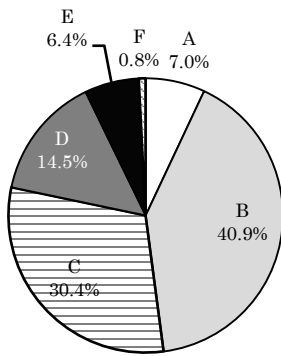
## 5 - 2.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대한 평가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일본인은 절반 가까이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한국인은 40% 가량이 '부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응답해 '긍정적인 평가한다'는 응답보다 많았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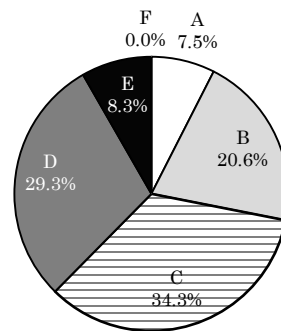
2015년 12월 한일 외무 장관 회담에서 일본 정부가 예산을 출연해 일본군 '위안부'의 지원을 실행하는 것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다는 내용의 한일 양국 정부간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에 대한 평가를 물었을 때, 일본인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의 합계, 이하 동일)는 응답이 47.9%로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어느 정도 부정적으로 평가한다'의 합계, 이하 동일)의 20.9%를 크게 넘어섰다. 이에 반해 한국인은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응답이 40%를 육박하는 37.6%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응답의 28.1%를 웃돌아 일본측과는 반대의 결과를 보였다.

**[그림16 일본군 위안부 관련 한일 정부간 합의에 대한 평가]**

**일본국민(N=1,000)**



**한국국민(N=1,010)**



A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B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C 어느 쪽도 아니다  
 D 대체로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E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F 무응답

## 6. 정부간 외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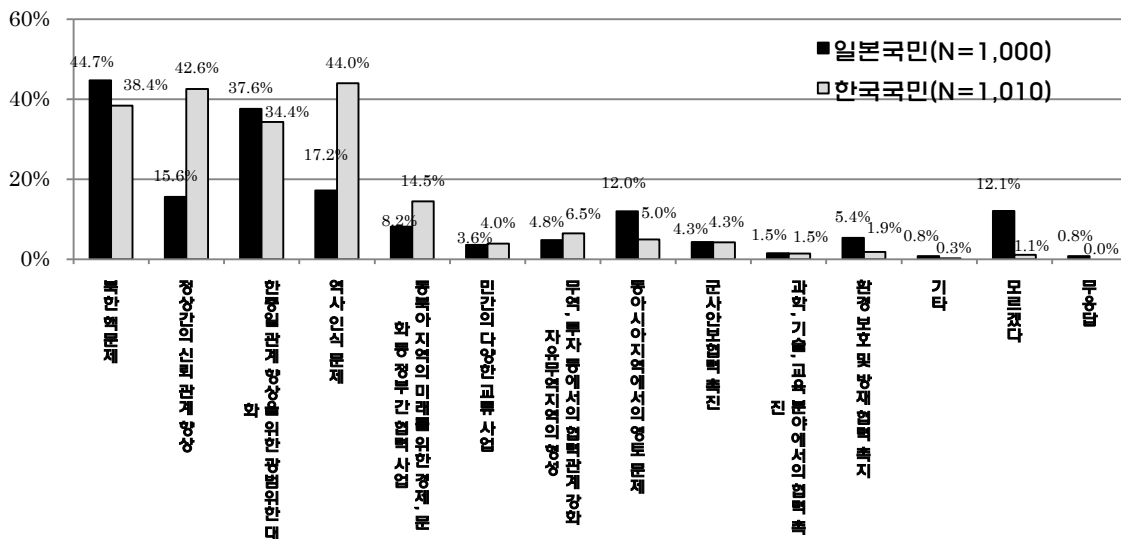
### 6-1. 한중일 정상회담 논의 주제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논의할 주제로 '북핵문제', '한중일 관계향상을 위한 광범위한 논의' 등 2개 주제에 대한 양 국민의 인식은 거의 일치했지만, 한국인의 40% 이상이 선택한 '역사인식문제', '정상간의 신뢰관계 향상'을 선택한 일본인은 20%에 못 미쳤다.

한중일 정상회담이 올 가을에도 개최될 예정이지만, 이 정상회담에서 가장 논의되기를 바라는 과제를 묻는 질문에, 일본인은 '북핵문제'(44.7%), '한중일 관계향상을 위한 광범위한 논의'(37.6%) 등 2개의 주제에 대한 답변이 특히 많았다. 한국인도 '북핵문제'(38.4%)와 '한중일 관계 향상을 위한 광범위한 논의'(34.4%)를 선택한 사람이 많아, 이 점에 있어서 양국민의 인식은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인에게 가장 많았던 '역사인식문제'는 44.0%나 됐지만, 이것을 선택한 일본인은 17.2%로 절반에도 이르지 못했다. 또한 한국인이 두 번째로 많이 선택한 '정상간의 신뢰관계 향상'(42.6%)에 대해서도 이를 선택한 일본인은 15.6%에 그쳤다. 또한 '동아시아 지역의 영토문제'를 선택한 일본인은 12.0%였던 반면, 한국인은 5.0%에 불과해 양국간의 차이를 드러냈다.

[그림17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논의해야 할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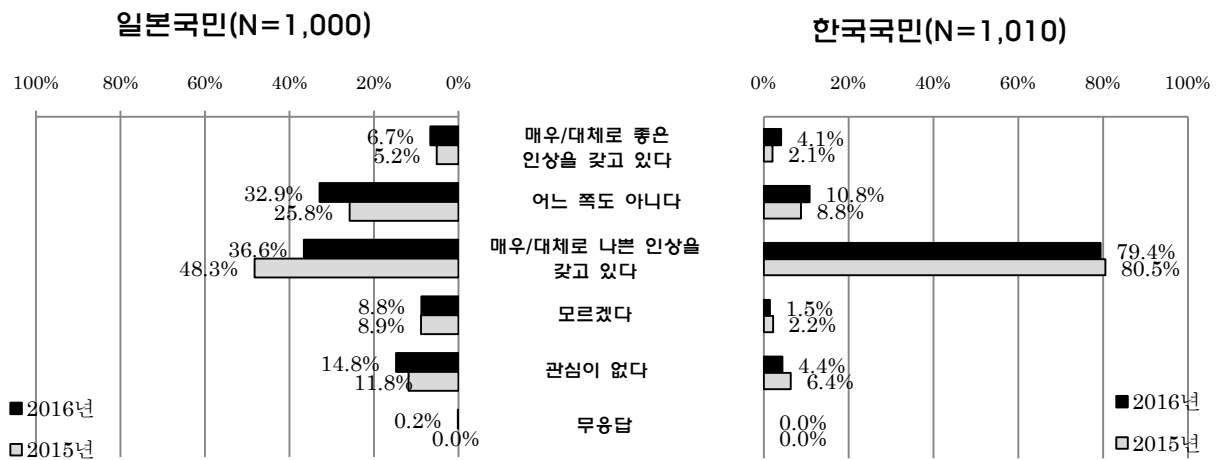
## 6 - 2. 상대국 정상에 대한 인상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일본인의 인상은 지난 1년동안 개선됐지만, 아베 총리에 대한 한국인의 인상은 지난해와 같이 '나쁜 인상'에 대한 응답이 80%에 가깝다.

일본인에게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인상을 묻는 질문에 '나쁜 인상'('매우 나쁜 인상'과 '대체로 나쁜 인상'의 합계, 이하 동일)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36.6%로 가장 많았지만, 작년의 48.3%와 비교하면 감소했다. '좋은 인상'('매우 좋은 인상'과 '대체로 좋은 인상'의 합계, 이하 동일)은 작년 5.2%보다 증가했지만 10% 미만인 6.7%에 그쳐 인상의 호전에는 이르지 못했다.

한편, 한국인들이 일본의 아베신조 수상에 대해 '나쁜 인상'을 갖고 있는 비율은 79.4%로, 작년 80.5%에서 약간 개선된 수준에 불과하다. '좋은 인상'은 지난해 2.1%에서 거의 두 배 증가했지만 4.1%에 지나지 않는다.

【그림 18 상대국 정상에 대한 인상】



# 7. 한반도의 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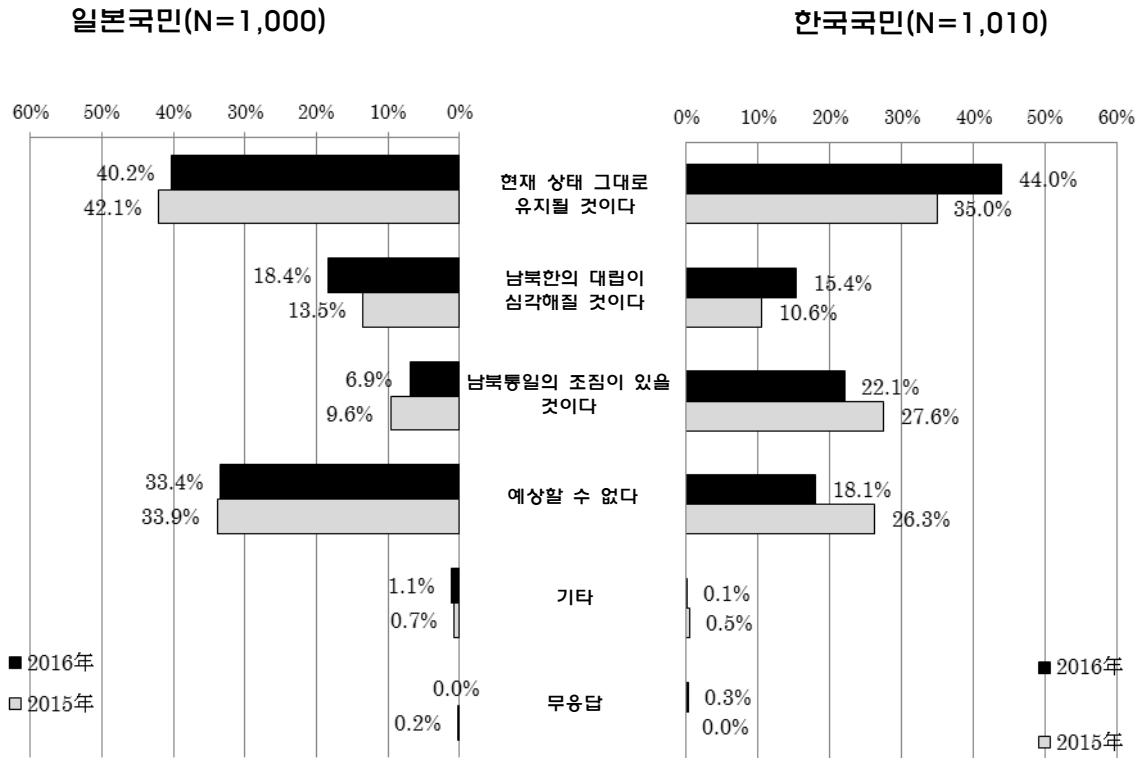
## 7 - 1. 10년 후 한반도

10년 후 한반도의 모습에 대해 한일양국은 '현 상황이 유지될 것'이라는 견해가 가장 많았지만 '남북의 대립격화'를 예상하는 시각이 지난 1년간 증가했다.

10년 후 한반도의 모습에 대한 질문에 일본인은 '현 상황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이 40.2%(지난해 42.1%)로 가장 많았지만 '한국과 북한의 대립이 격화할 것'이라는 응답도 작년 13.5%에서 올해는 18.4%로 다소 증가했다.

당사국인 한국에서도 '현 상황이 유지될 것'이라는 응답이 44.0%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작년 35.0%에서 9%p 오른 수치다. 한편 '남북통일의 움직임이 시작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작년 27.6%에서 올해 22.1%로 감소되었고 이와 함께 '한국과 북한의 대립이 격화될 것'이라는 응답이 작년 10.6%에서 올해 15.4%로 증가했다.

【그림 19 10년 후 한반도의 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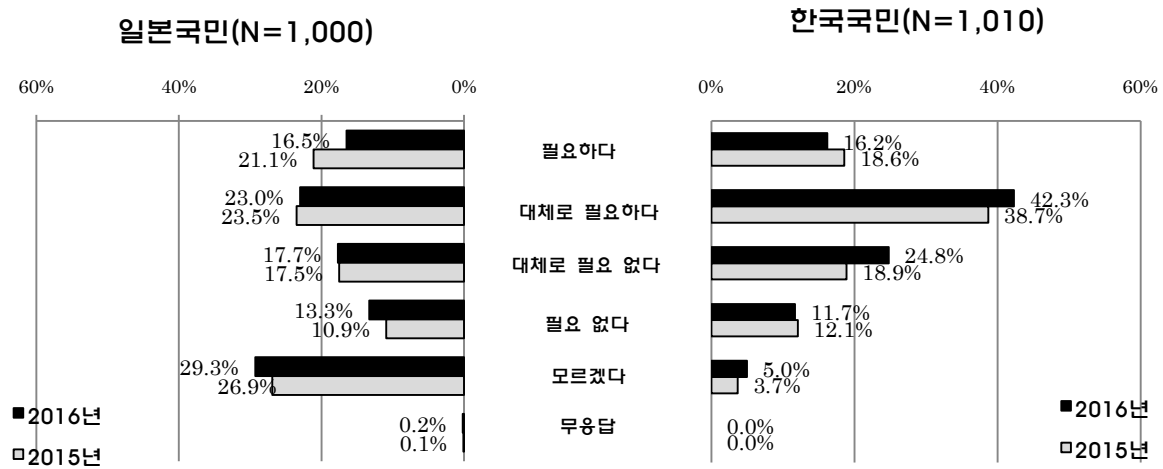
## 7 - 2. 한반도 통일 후 주한미군

한국인의 60% 정도는 한반도가 평화적으로 통일되더라도 주한미군은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일본인도 40%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모르겠다'고 응답한 사람도 30% 정도 된다.

한반도가 평화적으로 통일된 후 주한미군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당사국인 한국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대체로 필요하다'를 포함, 이하 동일)가 58.5%(지난해 57.3%)로 60%를 육박하여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대체로 필요하지 않다'를 포함, 이하 동일)인 36.5% (지난해 31.0%)를 크게 넘어섰다.

이에 대해 일본인의 40% 정도인 39.5%(지난해 44.6%)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로 답하여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인 31.0%(지난해 28.4%)를 넘었다. 29.3%는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그림 20 한반도 평화통일 이후 주한미군에 대한 인식】





## 8. 동아시아의 군사 안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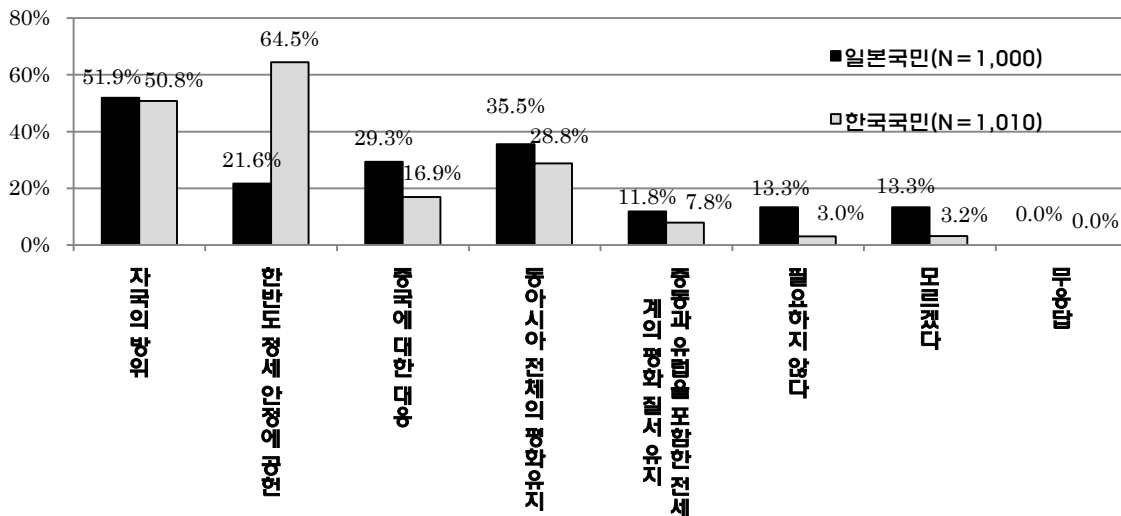
### 8 - 1. 미군기지의 역할

자국 내 미군기지에 기대하는 역할로, 한일 양 국민인식의 큰 차이 중 하나는 한국인에 비해 일본인이 중국에 대항을 더 많이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국에 있는 미군기지에 기대하는 역할로, 일본인은 '일본의 방위'를 51.9%로 가장 많이 선택했지만 '동아시아 지역 전체의 평화유지'(35.5%), '중국에 대항'(29.3%)를 선택한 응답도 30% 정도 있었다.

한편 한국인은 '한반도 정세의 안정에 기여'가 64.5%로 눈에 띄게 많았고 '동아시아 지역 전체의 평화유지'는 28.8%, '중국에 대항'은 16.9%에 불과했다.

**【그림 21 미군기지의 역할】**



## 8 - 2. 군사적 위협과 한일간의 군사분쟁에 대한 인식

'일본'을 군사적 위협으로 보는 한국인은 작년보다 20%p 이상 감소했지만 여전히 40% 가까이 존재하고 있다. 일본인의 경우 '북한', '중국', '러시아'를 위협적으로 보는 시각이 작년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또한 한일간의 군사분쟁에 대해서 일본인의 60% 이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반면 한국인은 '수 년 내에'와 '먼 장래에'를 합쳐 작년과 마찬가지로 40% 가까운 응답자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본인이 가장 큰 군사적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는 국가는 '북한'으로 작년 71.6%에서 9%p 증가한 80.4%이고 '중국'이 작년 64.3%보다 증가해 72.8%로 그 뒤를 이었다. '러시아'는 작년 36.0%에서 올해 50.0%로 크게 증가했다. '한국'을 군사적 위협으로 간주하는 일본인은 작년 11.2%보다 다소 증가했지만 16.9%에 불과했다.

한국인이 생각하는 군사적 위협도 '북한'이 83.4%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는 올해도 '일본'으로 작년 58.1%에서 20% 이상 감소했으나 37.7%에 이르고, 이는 36.0%(지난해 36.8%)인 중국과 비슷한 수준이다.

한국인이 일본을 군사적 위협으로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 60.1%로 뚜렷이 드러났다. 그 다음으로는 '전쟁책임에 대해서 여전히 일본정치가 모호한 자세를 취하기 때문'(48.6%), '일본정치의 일부에 존재하는 우경화 때문'(42.0%)이 뒤를 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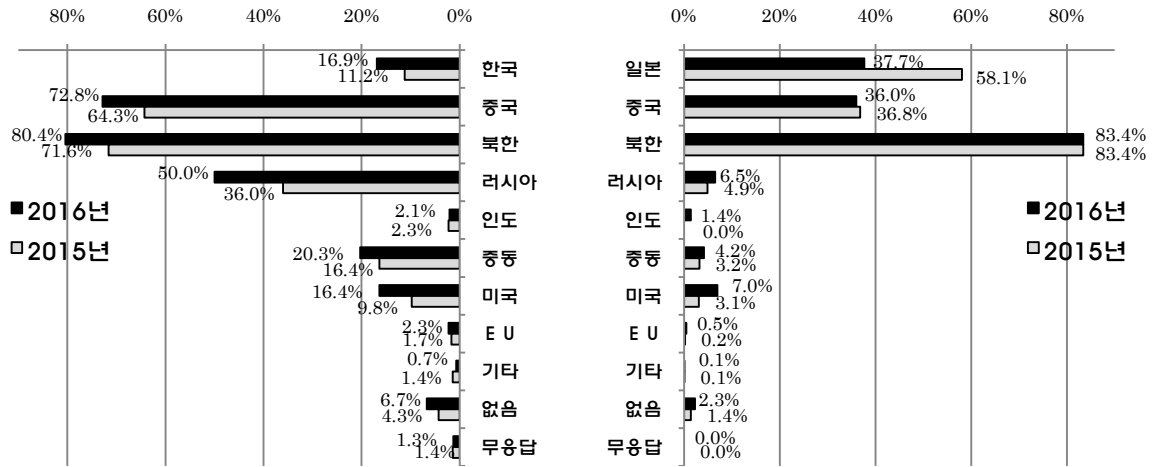
한일간의 군사분쟁 가능성에 대해서 일본인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65.8%(지난해 65.7%)이고, '수 년 내에 일어날 것'(0.4%, 지난해 0.7%)과 '먼 장래에 일어날 것' (7.7%, 지난해 8.6%)의 2개 응답을 합쳐도 군사분쟁을 우려하는 일본인은 8.1%로서 10% 미만이다.

한편, 한국에서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본 응답자가 48.8%(지난해 48.2%)로 가장 많았지만, '수 년 내에 일어날 것'(4.5%, 지난해 5.3%)과 '먼 장래에 일어날 것' (33.2%, 지난해 32.5%)의 2개 응답을 합하면, 일본과의 군사분쟁을 예상하는 한국인은 37.7%나 존재한다.

[그림 22 군사적 위협을 느끼는 국가 및 지역]

일본국민(N=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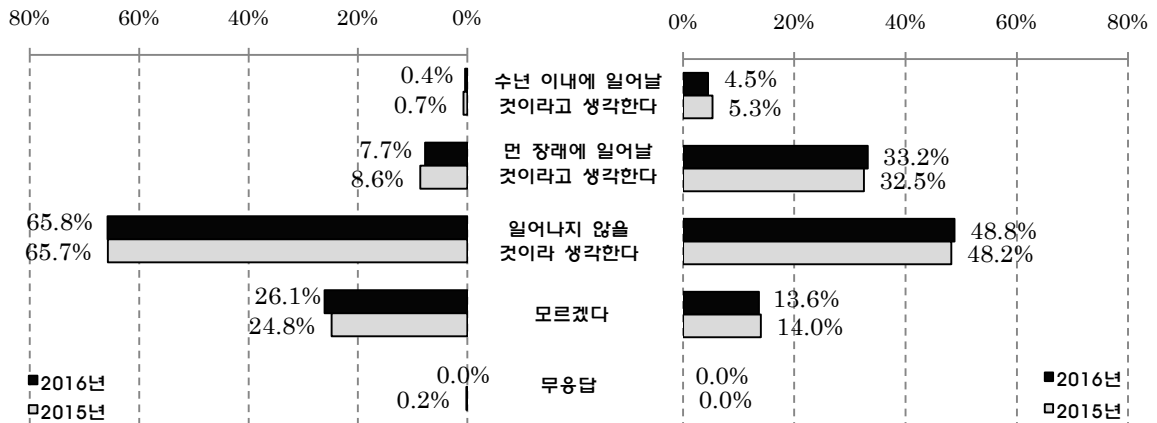
한국국민(N=1,010)



[그림 23 한일 간 군사분쟁]

일본국민(N=1,000)

한국국민(N=1,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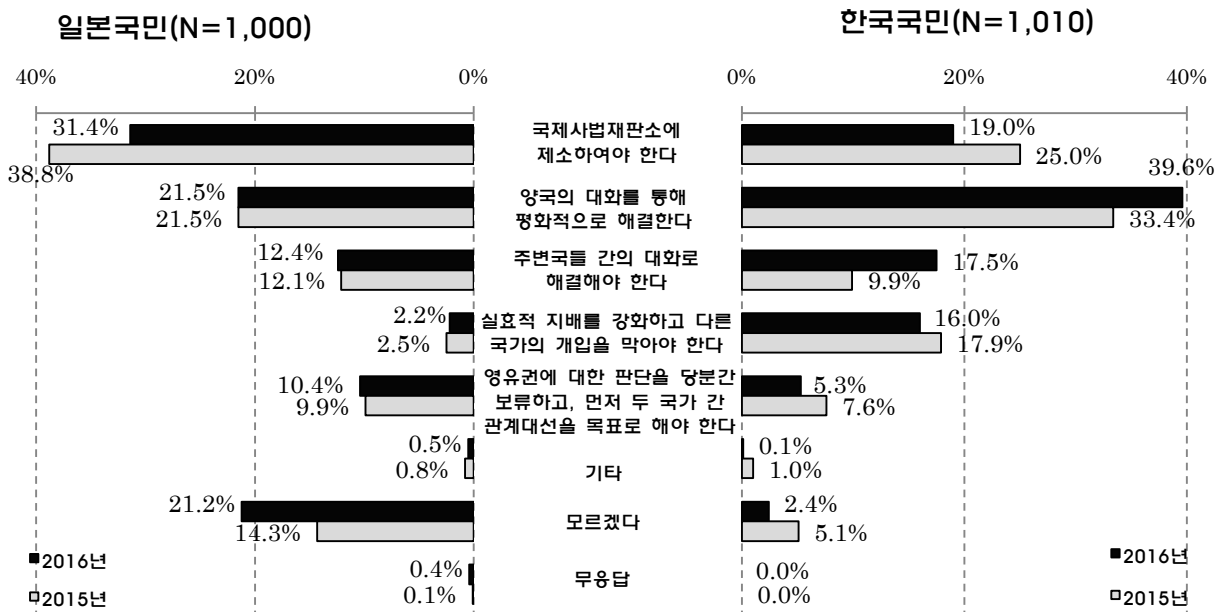
### 8 - 3. 영토문제의 해결책

영토문제의 해결책으로서 일본인에게 가장 많은 응답은 '국제 사법재판소에 제소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인의 경우 '양국 간 대화를 통해 평화적 해결을 목표로 한다'는 입장이 가장 많았다. 다만, '실효 지배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한국인도 16.0% 된다.

동아시아 지역의 영토문제 해결방법에 대해서 일본인의 가장 많은 응답은 '국제 사법재판소에 제소해야 한다'로 31.4%의 일본인이(지난해 38.8%) 이 해결방안을 선택했고, '양국 간 대화를 통해 평화적 해결을 목표로 한다'가 21.5%(지난해 21.5%)로 그 뒤를 이었다.

이에 대해 한국인은 '양국 간 대화를 통해 평화적 해결을 목표로 한다'가 39.6% (지난해 33.4%)로 가장 많았고 '국제 사법재판소에 제소해야 한다'가 19.0%(지난해 25.0%)로 그 뒤를 이었다. 다만, '실효 지배를 강화하고 다른 나라의 개입을 막아야 한다'는 응답도 16.0%(지난해 17.9%) 있었다.

【그림 24 아시아의 영토 문제에 대한 해결책】



#### 8 - 4. 한일 양국의 핵무장에 대한 찬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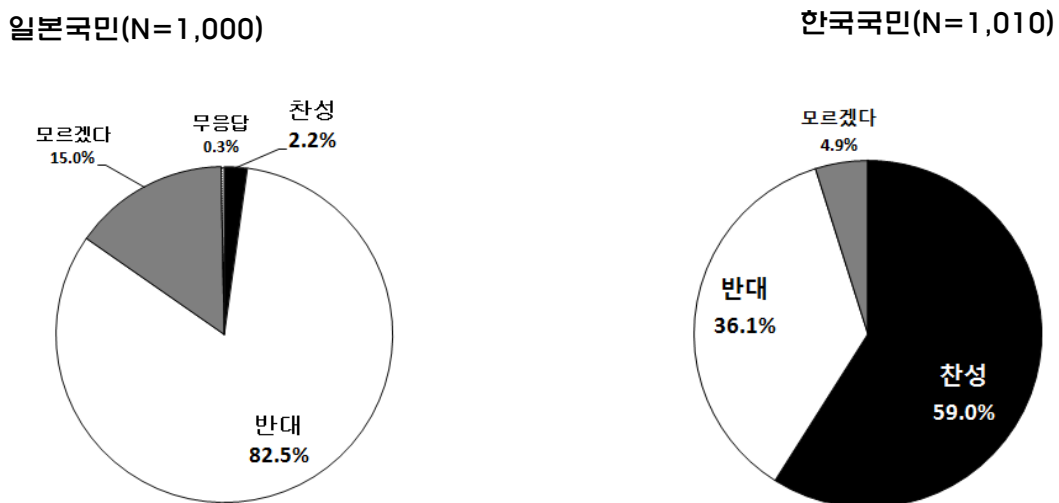
일본인의 80% 이상은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에 '반대'했다. 한국인의 80%는 일본의 핵무장에 '반대'하지만, 60%는 자국의 핵무장에 대해 '찬성'했다.

일본의 핵무장에 대해 일본인의 80.3%, 한국인의 82.2%가 '반대'했다. 한편, 한국인의 59.0%는 자국의 핵무장에 대해 '찬성'하여 '반대'인 36.1%의 응답을 크게 웃돌았다.

【그림 25 일본의 핵무장에 대한 평가】



【그림 26 한국의 핵무장에 대한 평가】



## 8 - 5. 미국 대통령 선거와 동북아의 안보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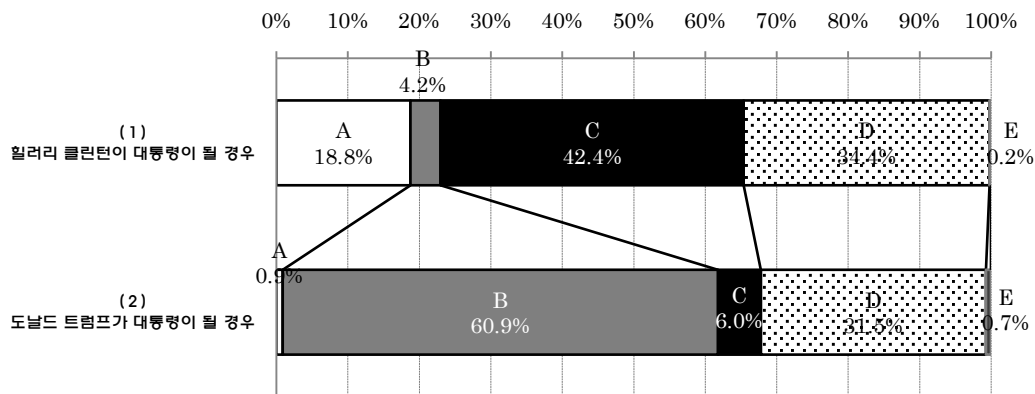
한일 양 국민의 약 60%가 미국 대선 결과 '트럼프 대통령'이 탄생하면 동북아 안보 환경은 '훨씬 불안정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2016년 11월 미국 대선 결과, 힐러리 클린턴 대통령이 탄생하면 일본인의 42.4%는 동북아의 안보환경에 '영향이 없다'고 응답했고 '더 안정화될 것'이라는 의견은 18.8%로 20%에 못 미쳤다. 한국인도 '영향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39.8%로 가장 많았지만 '더 안정화될 것'이라는 응답도 40% 가까운 37.8% 존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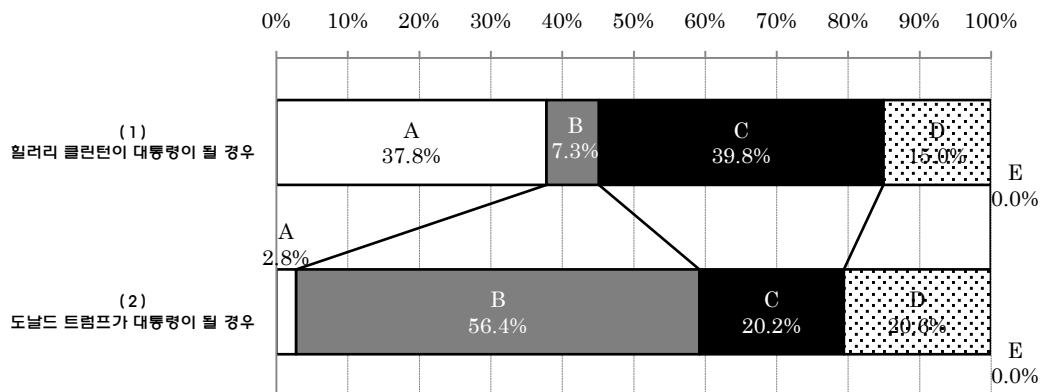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탄생하면 일본인의 60.9%, 한국인의 56.4%가 동북아 안보환경이 '더 불안정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림 27 미국 대통령 선거와 동북아 안보환경】

일본국민(N=1,000)



한국국민(N=1,010)



# 9. 한일 경제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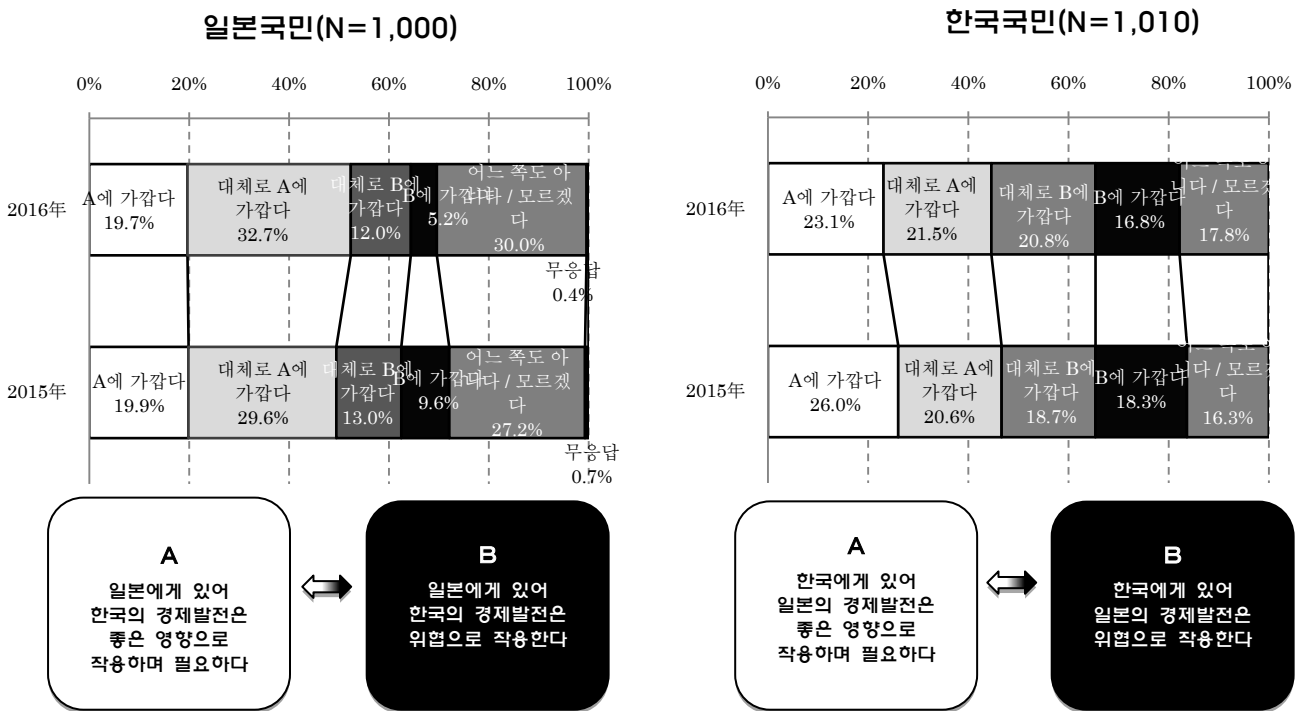
## 9 - 1. 한일 경제관계

한일 경제관계에 대해서는 양국 모두 상대국의 경제 발전은 자국에도 유리하다는 인식이 가장 많았다.

한일 경제관계에 대해 '일본에게 한국의 경제발전은 유리하며 필요하다'('대체로 그렇다'를 포함. 이하 동일)고 생각하는 일본인은 52.4%로(지난해 49.5%) 한국의 경제발전은 일본에게도 유리하다는 인식이 절반을 넘었다.

한국인의 44.6% 역시 일본의 경제발전은 한국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며 이 수치는 '일본의 경제발전은 한국에게 위협'('대체로 그렇다'를 포함)이라는 응답의 37.6%(지난해 37.0%)를 상회한 것이다.

【그림 28 한일 경제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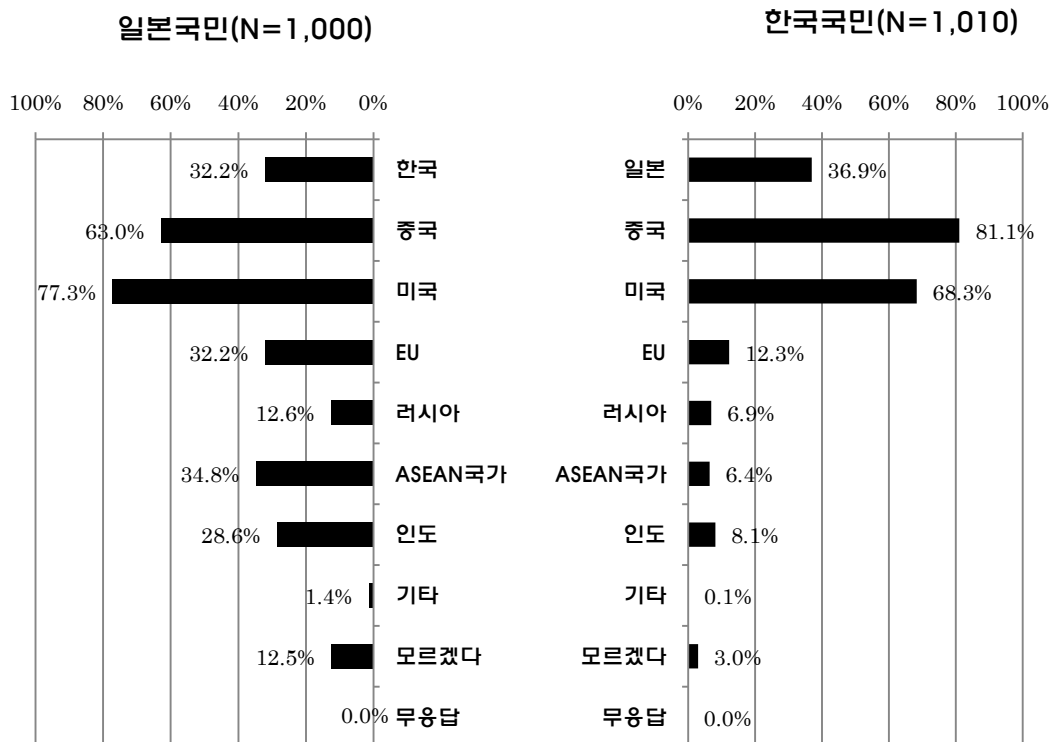
## 9 - 2. 경제관계가 중요한 나라 및 지역

일본인이 자국경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나라는 '미국'(77.3%)이고 '중국'(63.0%)이 그 뒤를 이었으며, 그 밖에 'ASEAN', '한국', 'EU', '인도'를 선택한 응답자도 30% 전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인이 한국경제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나라는 '중국'으로 80%를 넘었다. 다음으로 '미국'(68.3%), '일본'(36.9%) 순으로 이 3개국에 집중되어 있다.

자국 경제에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나라에 대해 일본인의 77.3%가 '미국' 이라고 응답하여 63.0%인 '중국'을 크게 넘었다. 또 일본인의 경우 'ASEAN 국가'(34.8%) '한국'(32.2%), 'EU'(32.2%), '인도'(28.6%) 등의 응답도 각각 30% 정도 등장했다.

한국인에게에는 '중국'이 81.1%로 가장 많았고, 이는 '미국'(68.3%)보다 10%p 이상 많은 수치다. '일본'을 선택한 사람도 36.9%로 어느 정도 있지만 다른 나라 지역은 모두 10% 전후에 머물러있다.

【그림 29 자국과 경제관계가 중요한 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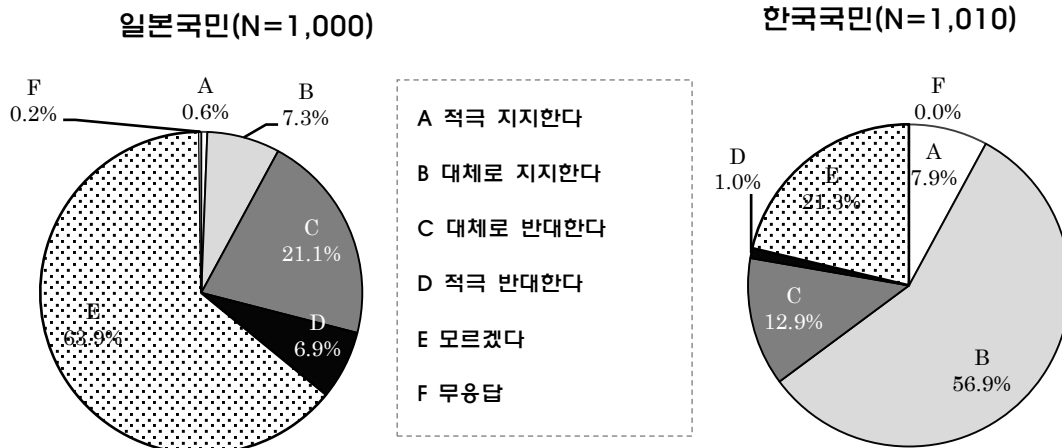
### 9 - 3. 한국의 AIIB 참여

한국인의 60% 이상이 자국의 AIIB 참여를 지지하고 있는 반면, 일본인의 60%는 '모른다'고 응답했고 '지지'하는 응답은 10%에 이르지 못한다.

미국의 불참 요청에도 불구하고 중국 주도의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AIIB) 참여를 결정한 한국정부의 판단에 대해 한국인의 64.8%가 '지지한다'('적극적으로 지지한다' '대체로 지지한다'를 포함. 이하 동일)고 평가하여 13.9%의 '반대한다'('적극적으로 반대한다' '대체로 반대한다'를 포함. 이하 동일)는 의견을 크게 넘었다.

한편, 일본에서는 63.9%가 '모른다'고 응답하는 등 평가를 유보했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28.0%, '지지한다'는 7.9%였다.

【그림 30 한국의 AIIB 참여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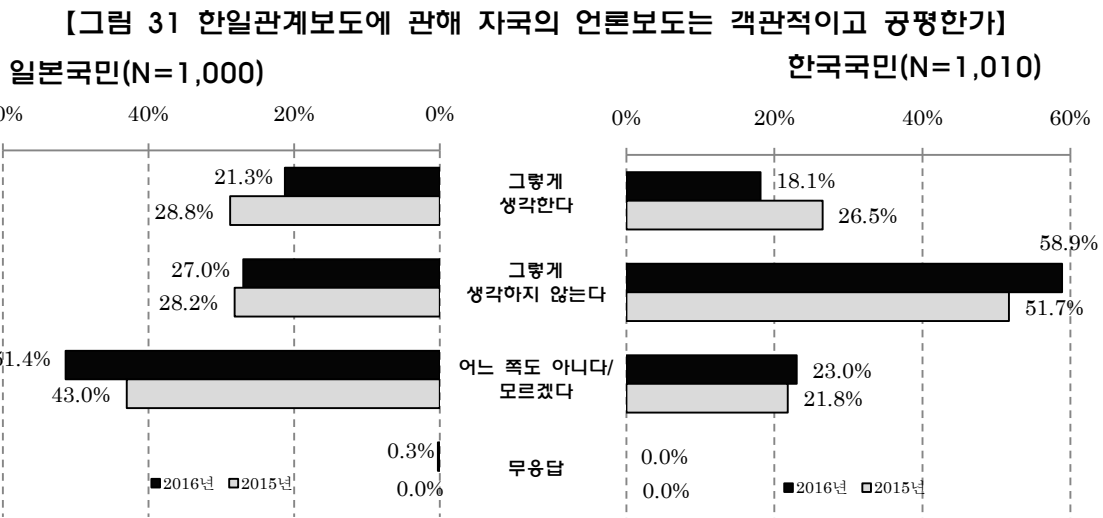
## 10. 양국의 미디어 보도 및 인터넷 여론의 평가

### 10-1. 자국 언론보도의 객관성과 공정성 평가

자국 미디어의 한일관계에 대한 보도의 객관성 및 공정성에 대해, 한국인의 약 60%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를 하고 있지 않다'고 답한 반면, 일본에서는 '둘 다 아니다/모르겠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자국 언론이 한일 관계의 보도에 있어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58.9%(지난해 51.7%)로 60% 가까운 반면, '그렇다'는 응답은 18.1%(지난해 26.5%)로 20% 미만에 머물러 있다.

반면 일본에서는 '어느 쪽이라고도 말할 수 없다/모르겠다'며 판단을 유보하는 응답이 51.4%(지난해 43.0%)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27.0%(지난해 28.2%)로 '그렇다'의 응답인 21.3%(지난해 28.8%)보다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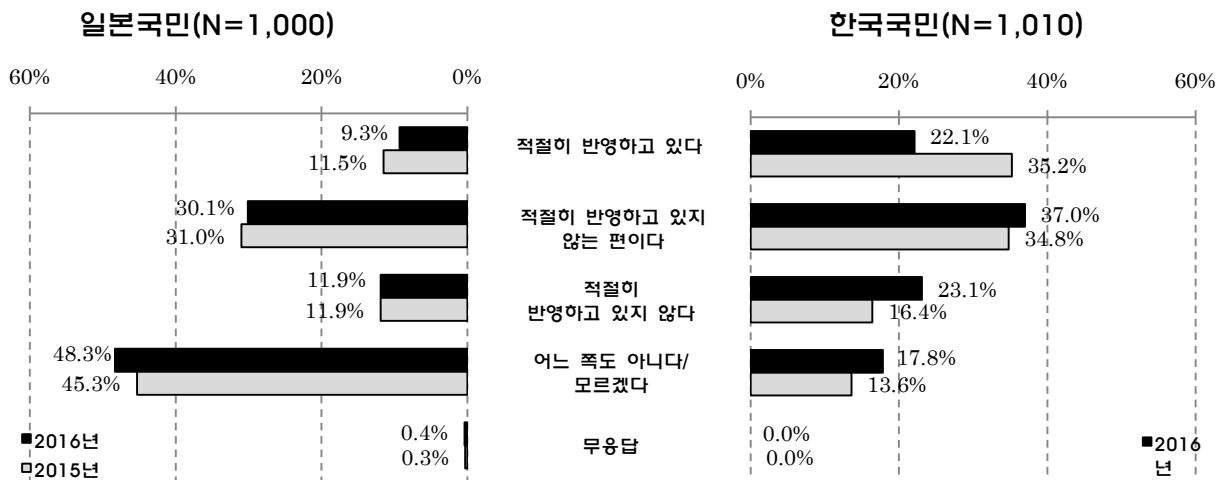
## 10-2. 인터넷에서의 상대국에 대한 여론이 민의를 적절히 반영하는가

**한국인의 60%, 일본인의 40%가 '인터넷 여론이 민의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느끼고 있다.**

인터넷상의 여론이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 한국인은 '반영하지 않는다'의 응답이 작년 51.2%에서 증가해 60.1%로 나타났다.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는 응답도 작년 35.2%에서 올해는 22.1%로 감소했다.

한편 일본인은 '적절히 반영하고 있지 않다'('적절히 반영하고 있지 않는 편이다'를 포함. 이하 동일)라는 응답이 42.0%(지난해 42.9%)로 40%를 넘는 반면,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는 응답은 9.3%(지난해 11.5%)로 10%에 이르지 못하는 수준이다. '어느 쪽이라고 말할 수 없다/모르겠다'고 판단을 주저하는 사람도 48.3%(지난해 45.3%)로 절반 가까이 있다.

**【그림 32 인터넷상의 민의】**



# 11. 양국민의 상호 이해의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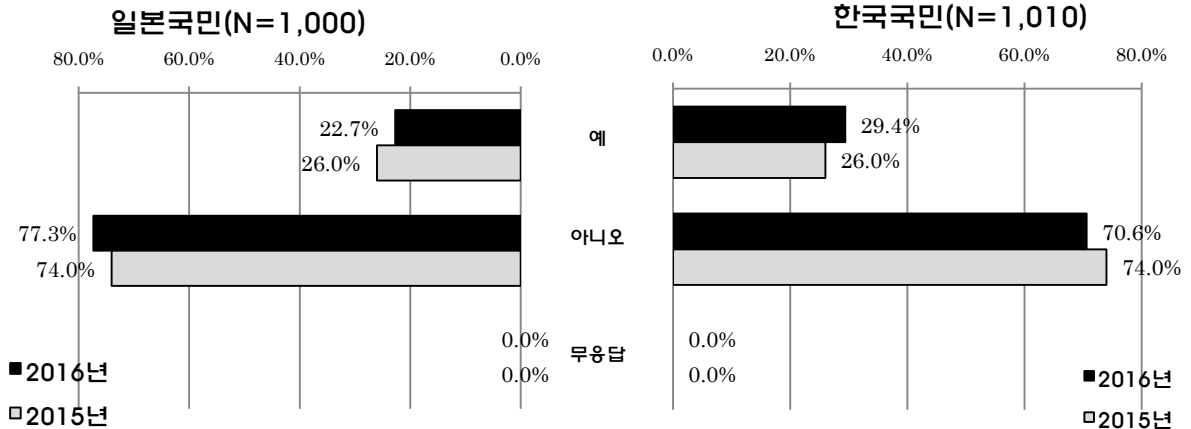
## 11-1. 양 국민의 직접교류 정도

일본인의 한국 방문경험은 20%, 한국인의 일본 방문 경험은 30% 정도이지만, 지난1년간 3% 증가했다. 일본인의 70% 이상, 한국인의 80% 이상이 상대국가에 친지나 지인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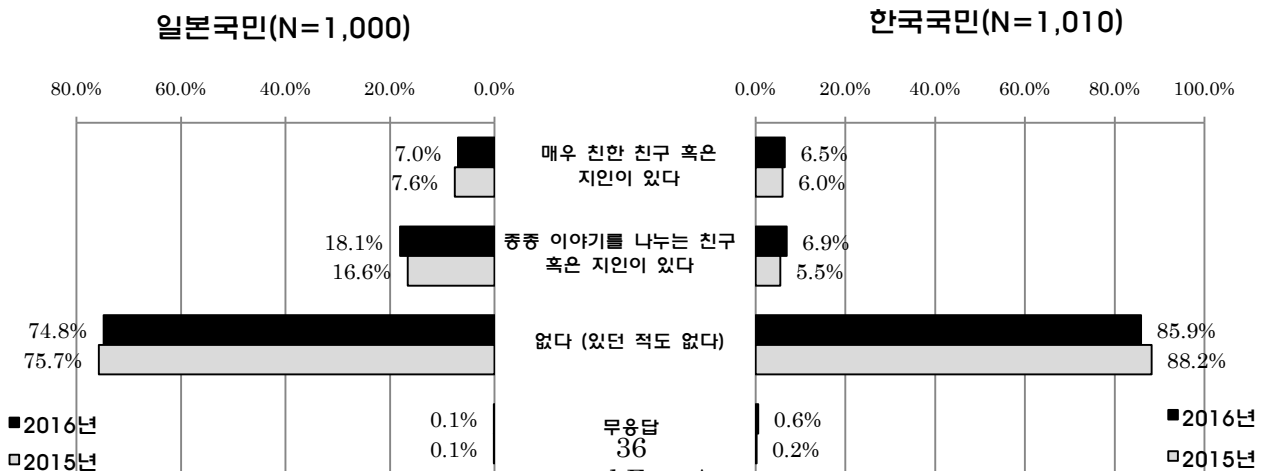
일본인 중 한국 방문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22.7%(지난해 26.0%), 한국인은 29.4%(지난해 26.0%)에 그쳤다. 그러나 한국인은 조사를 시작한 이후 4년 연속으로 '있다'는 응답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인의 85.9%(지난해 88.2%), 일본인의 74.8%(지난해 75.7%)가 '상대국 국민에 아는 사람이 없다(있었던 적도 없다)'고 답해 양 국민 사이에 상대 국가와의 직접적인 교류의 정도가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33 상대국 방문경험】



【그림 34 상대국의 지인 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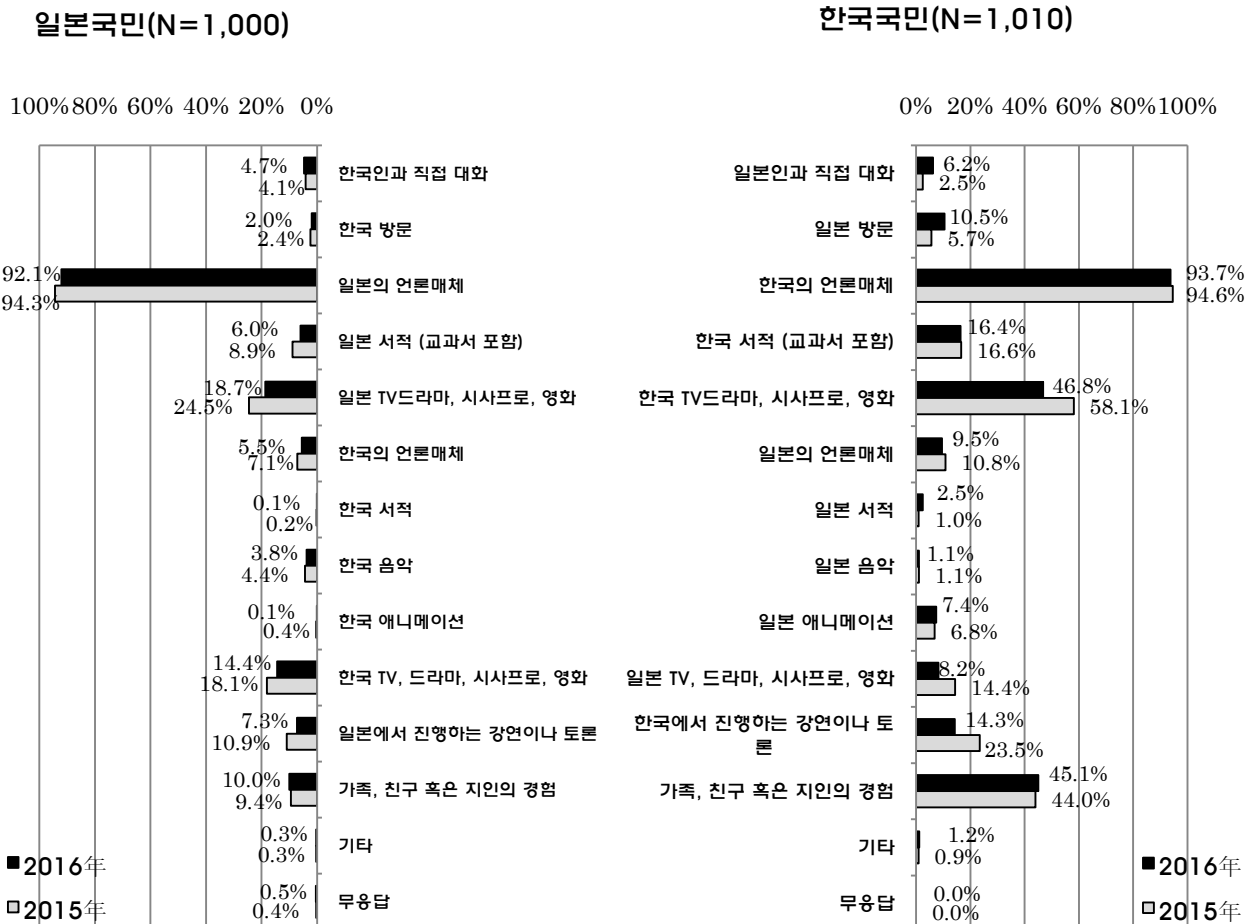


## 11-2. 상대국 관련 정보에 대한 관심과 정보출처

상대국에 대한 정보는 양 국민 모두 90% 이상이 '자국의 뉴스 미디어'에서 얻고 있으며, 특히 'TV'에 의존하고 있다. 단, 한국에서는 '한국 TV드라마 등'과 '가족, 지인 등의 경험'에서 정보를 얻는 사람도 40%를 넘고 있다.

양 국민 모두 상대국에 대한 정보는 90% 이상(한국은 93.7%, 일본은 92.1%)이 '자국의 언론매체'라고 응답했고 그 중에서도 특히 'TV'에 의존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 밖에 한국에서는 '한국 TV 드라마, 정보 프로그램, 영화'(46.8%), '가족, 지인 등의 경험'(45.1%)를 고른 사람도 각각 40% 이상이었다.

[그림 35 상대국 및 한일관계 관련 자료 습득 경로]



< 본 조사에 관한 문의로는 아래로 부탁드립니다 >

우편번호 04548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58, 909 호 (을지로 4 가, 삼풍빌딩)

(재)동아시아연구원

TEL : 02-3426-9395(126)